48과

고난 받으신 예수님

12월 1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였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 보였어요.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병사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를 잡으러 왔소!” 병사들은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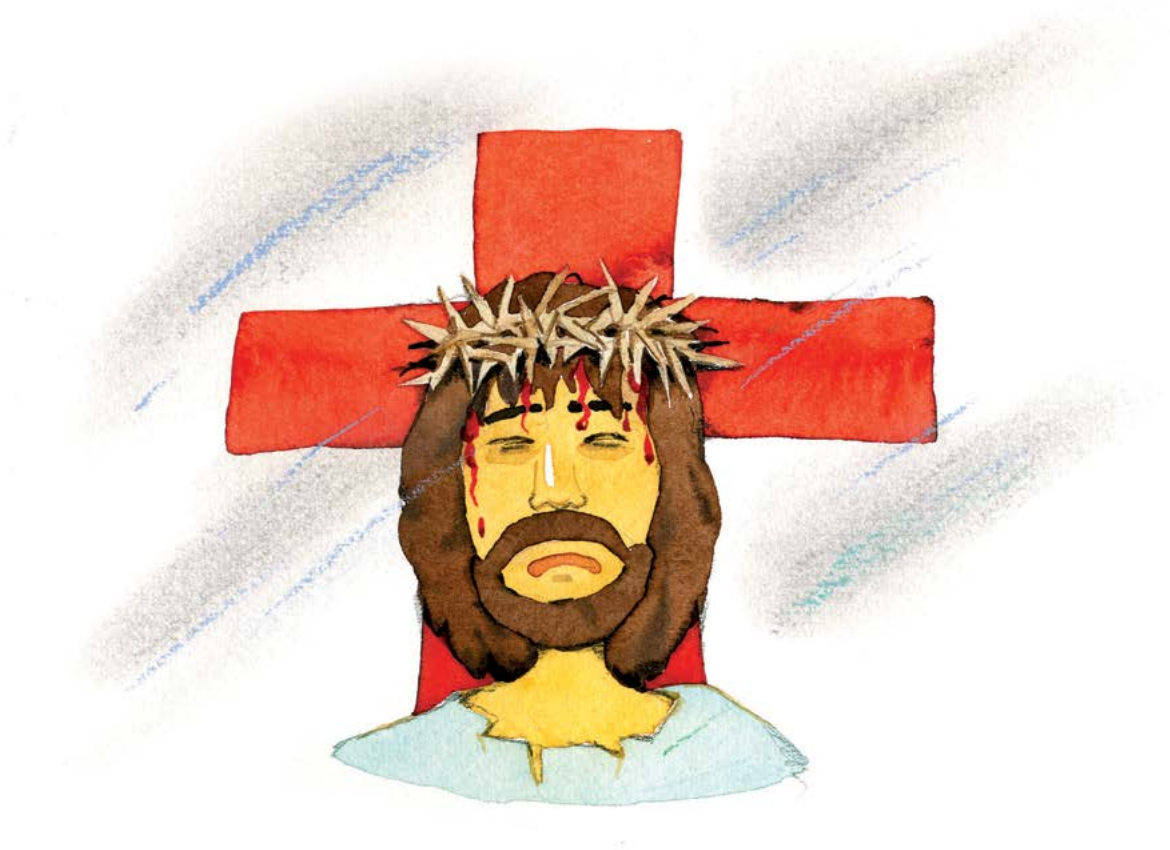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죄수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어요.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어야 했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 피가 흘렀어요.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눕혀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생각하는 아이

남우는 교회학교 친구 아람, 민준, 예은, 민서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방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남우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어요. 장난감은 상자 안에 넣고, 책도 책꽂이에 차례차례 정리해서 꽂았어요. 청소기로 바닥의 먼지도 치우고, 걸레로 바닥도 닦았어요. 남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우는 교회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힘든 일을 아주 많이 겪으셨다고 했어……. 난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즐거운 활동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뉘우치길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색칠하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마가복음 9장 12절

다시 쓰기

선생님께

부모님께